

문화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2012 광주폴리 감독 독일 출신 니콜라우스 허쉬 선임

“친숙함과 예술성 두루 갖춘 폴리 만들겠다”

전계수 감독의 '러브 픽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겪게 되는 연애감정에 대한 '시시한 보고서' 같은 영화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늘 대단하거나 멋진 남녀 주인공들의 드라마틱한 연애담을 보고 자라온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소소한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다.

악화에서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연주하고 듣는 것이 관례가 되었는가. 물론 감독은 아이러니한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 환희의 송가를 이런 장면에 삽입했지만,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감동과 환희의 순간 또한 소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감독은 '러브 픽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재채하고 소심한 사람들인지, 실제의 삶은 멋진 드라마가 아니라 끝없이 작은 감정들과 씨름하며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들춰낸다.

꼭 일 년에 한번 엄숙하게 맞이해야만 하는 환희의 송가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늘 만날 수 있는 소소한 환희의 순간에도 베토벤의 멜로디를 떠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작은 감동의 순간에 우리는 환희의 송가를 더욱 드높여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실재한 소설가 구주월(하정우)은 출판사 대표를 따라 독일에서 작가 영화 수업사에서 일하는 최진(공효진)을 만난다.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구주월. 여기까지는 어느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

베토벤 합창 교향곡 최고의 연주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카라얀이다. 카라얀의 디스코그래피를 보면 이 곡에 대한 녹음만 해도 십 여종이 넘는다. 베토벤 교향곡 전집을 네 번이나 완성했다는 사실도 그가 얼마나 탁월한 베토벤 해석가였는지를 보여주는 예다.

영화 '러브 픽션' 중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일상의 작은 감동을 위하여

하지만 그들이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아름답거나 예뻐한 감정이 넘치는 연애담은 운데간데 없고, 우리 주변에서 늘 보아왔던 익숙한 상황들이 펼쳐진다. 재채하고 소심하다 못해 불쌍하게까지 느껴지는 구주월의 캐릭터는 연락없이 대다수 대한민국 남자들의 자화상인 것이다.

카라얀의 합창 교향곡 연주 가운데 최고의 연주는 1977년 12월 31일 베를린 필하모니 홀에서 이뤄진 송년음악회 실황, 저 유명한 질베스터 콘서트다. 베토벤 바이올린의 김병민이 몇 백번을 반복해서 봤다는 그 공연이다.

이렇게 시시하고 재채한 사랑의 이야기에 클래식 음악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인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의 4악장 '환희의 송가'가 등장한다. 구주월이 여자친구가 된 최진을 처음으로 집으로 데려와 그녀와 사랑할 상상을 하는 장면에서 그의 기대에 찬 감정을 고조시키는 장면이 쓰인다.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작렬하는 리듬의 향연, 그리고 우주로 진동하는 듯한 마지막 악장의 클라이막스는 믿을 수 없는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실제 카라얀이 이 연주회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탈진했다고 전해진다.

사실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은 틀림없이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임에 틀림없고,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오죽했으면 해마다 송년 음

음반으로는 역시 카라얀이 도이치 그라모폰에 남긴 1960년대 녹음이 훌륭하다. 젊은 카라얀의 기백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결국 합창 교향곡에 있어서만큼 카라얀의 경쟁자는 카라얀 자신 뿐이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활용되면 서도 미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폴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올해 추진할 '광주폴리(Folly) 프로젝트' 총감독으로 독일 출신 니콜라우스 허쉬(Nikolaus Hirsch)프랑크푸르트 슈테델슐레 건축대학장이 4일 선임됐다. 광주폴리(Folly)는 광주 도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의 공공 조형물을 조성, 문화 자산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 지난해 디자인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로 추진돼 11개가 설치돼 있다. 그는 총감독으로 선임된 뒤 기자회견에서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폴리 감독으로 참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 장소에 설치되는 특성을 감안해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활용성이 높으면서 광주가 갖고 있는 민주·인권의 상징성, 미적인 예술성이 적절하게 결합한 폴리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조성된 폴리가 시민 삶 속에 녹아 내리는 도심 공공시설물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과의 소통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허쉬 감독이 예술성을 갖춘 조형물의 경우 그 도시가 갖는 구조와 이미지, 건축물의 독창적 조형성, 활용도 등 다양한 개념이 '충돌'한다는 점에 관심을 갖고 이스탄불과 인도 델리 등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도심 공공 시설물로서 폴리의 활용성에만 치우치는 게 아닌, 건축물의 미적인 예술성과 도시 상징물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의 작품으로는 드레스덴의 유대교 회당(Synagogue), 보켄하이머 데포 극장(Depot Theater),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플라자(United Nations Plaza), 유러피안 콘서트홀 등이 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만들어진 마스터 플랜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앞으로 구성될 큐레이터 등 폴리 건축팀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세부 계획은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광주 전 지역으로 폴리를 확대 조성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비엔날레는 허쉬 총감독과 함께 전시 큐레이터로 선임된 천의영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외에 해외 큐레이터와 광주지역 건축·예술 분야 전문가를 코디네이터로 영입한 뒤 올해 안에 8~10개의 폴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소프라노 김선희 10일 문예회관

지역에서 열리는 성악가들의 독창회 반주는 대개 피아니스트가 맡는 경우가 많다.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독창회 무대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다. 소프라노 김선희씨가 루마니아 바나블 티미슈아르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춰 웅장한 무대를 선사한다.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김씨는 이번 무대에서 도니체티의 '돈 파스칼레' 중 '그 눈빛이 기사를 사로잡았지', 구노의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푸치니의 '제비' 중 '도레타의 꿈' 등 여성 소프라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또 임금수 곡 '강 건너 불이 오듯', 김성태 곡 '동심초' 등 한국 가곡과 라흐마니노프의 곡들도 선사한다. 김씨와 협연하는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전주곡 등의 음악도 선사한다. 조선대와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베

르첼리 비오티 최고 연주자 과정, 한세대 연주학 박사과정 등을 마친 김씨는 광주시향, 금년새 유라시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라보엠' 등 10여편의 오페라에 주역으로 출연했다. 현재 한세대 등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벨칸토 성악아카데미 회원으로도 활동중이다. 문의 011-9623-57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예술제 성악독창 중·고등부

- 〈심사위원〉 정애련(전남대 교수) 이한나(조선대 교수) 김애련(목포대 교수) 박미애(광주대 교수) 김남경(송원대 교수) ◇ 중등부 1.2학년 ▲ 금상 2 정서현(동아여자2) ▲ 은상 5 박 윤(대자2) 8 신지유(광주경신2) ▲ 동상

- 3 박진영(영산포여자2) 7 배에스터(수피아여1) ◇ 중등부 3학년 ▲ 최고상 14 이소정(동아여자3) ▲ 금상 11 배성은(수피아여자3) 19 이하림(광주동신여3) ▲ 은상 12 김재나(금당3) 15 전예림(치평3) ▲ 동상 9 김혜진(송광3)

- 18 윤아름(비아3) ◇ 고등부 1.2학년 ▲ 최고상 4 손다희(광주예술2) ▲ 금상 3 윤시은(정광2) 6 임하은(수원1) 15 이요한(광주예술2) ▲ 은상 1 김가현(전주예술2) 16 김경렬(광주예술1) 17 김남효(살레시오여2) ▲ 동상 2 임가나(광주중앙여1) 7 김도균(광주예술2)

- 9 이예슬린(전주예술2) 11 한 솔(광주경신여2) 12 고병욱(광주예술2) 23 김주현(광주예술2) ◇ 고등부 3학년 ▲ 금상 27 윤경선(광주예술3) 29 장영찬(조대부속3) 47 신한술(광주예술3) 57 김유진(광주예술3) ▲ 은상 40 장지원(광주여자3) 52 강지환(전남예술3) 53 박선희(광주여자3) 55 조인화(전남예술3)

- ▲ 동상 5 이윤희(전남예술3) 34 조아라(광주예술3) 41 박수빈(전남예술3) 43 김한술(광주여자3) 44 김의미(광주예술3) 46 김동환(수원3) 50 최민우(전주예술3) 54 이준희(여수정보과학3) ※ 최고상 수상자는 컬러 인물사진 2매를 5월 12일까지 본사 문화사업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가톨릭문학상에 이은봉씨

시인 이은봉(광주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사진)씨가 제15회 한국가톨릭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가톨릭문학상은 가톨릭신문사(사장 황옥식 신부)가 주최하고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이 후원하는 상으로 심사를 거쳐 15회 수상자로 시 부문에 이은봉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 소설 부문에 노순자 씨를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은 10일 오후 4시 서울 우리은행 본점 4층에서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eumsoo Jang restaurant. Text includes: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0,000원 /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Includes images of food and restaurant interior.

Advertisement for U-square restaurant. Text includes: '아일랜드리시아',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Be natural Be delicious',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Advertisement for U-square sauna. Text includes: '유스퀘어 사우나', '24시',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크리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일랜드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